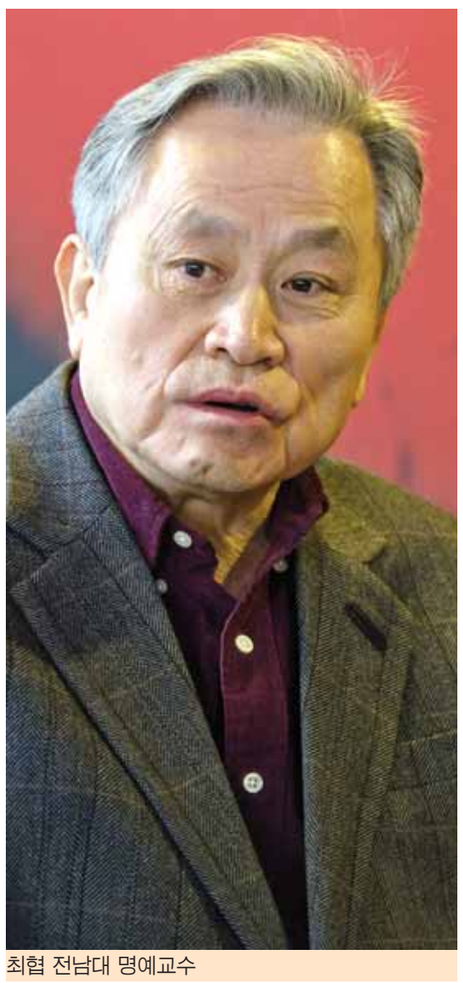
“‘우리 시대 소외된 자 누구인가’ 묻는 작품이다”


최협 전남대 명예교수

광주시립극단 ‘광주 100년사 연극 시리즈’ 첫번째 ‘오방선생’ 4월3일~6일 공연

오방손자 최협교수·연출가 심재찬
최목사와 그 시대 민초들의 이야기
“오방선생의 삶에서 현재를 본다”

어떻게 이런 삶이 있을까. 기자가 갖고 있던 놀라움은 연극 연출가 심재찬에게도 마찬가지인 듯했다. 무엇보다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 그와 주변인들의 삶은 2014년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적용된 듯해 심 연출은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박윤모)이 ‘광주 1백년사 연극 시리즈’ 첫 작품으로 준비한 ‘오방선생’은 ‘걸인과 한센인들의 아버지’로 불렸던 오방(五放) 최흥종(1880~1966) 목사의 삶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배우들과 한창 연습중인 심재찬 연출과 오방 선생의 손자인 최협 전남대 명예교수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심 연출이 복귀작으로 ‘오방 선생’을 택한 건 그의 삶에서 현재 대한민국을 보았기 때문이다.

“작품을 맡기 전에는 선생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 일제 강점기라는 최악의 시간에 한센병 환자, 걸인 등 극단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진 그의 삶에 눈길이 갔다. 시대를 넘어 인간 세상이 존재하는 한, 우리 사는 것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자본주의가 기형적으로 발전하면서 현재 역시 극단적 소외감을 갖는 이들이 생겨났다. 최흥종 이라는 한사람의 일대기를 넘어 동시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최 교수 역시 “어떤 이가 할아버지 삶이 우리 시대에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질문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그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작품에서는 오방 선생과 대비되는 인물로 ‘조안갑’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조안갑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나는 일본편이 아니다. 강자 편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용한 말이다. 나를 포함한 대개의 사람들은 유리한 편에 서서 산다. 끊임없이 강자 편에 서야 한다는 유혹에 빠진다. 하지만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심재찬)

최 교수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할아버지는 한센환자를 극진히 돌봤던 포사이스 선교사 를 만난 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있었던 듯하다. 이후 한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셨다. 초등학교 때 할 나환자들이 아버지를 찾아왔던 걸 기억한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내가곤 했다. 생식을 하시고, 한겨울에도 냉수마찰을 하셨다. 꼭 간디같은 느낌이었다. 함석헌 선생이 찾아오셔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가던 기억도 난다. 할아버지가 원효사 산집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40일 단식기도를 하셨다. 곡기를 끊기 시작하고 점점 말라가셨다. 여기 일이 끝나서 이제 떠난다며 즐거워 하셨다. 죽음을 앞두면서 저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충격이었다.”

심 연출은 작품을 연습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만든 힘이 무엇일까. 그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게됐다.

“최 목사의 삶중 가장 인상적인 게 ‘거세’였다. 가고자 했던 길을 지속적으로 가는 건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하지만 신사참배를 하는 등 자신의 가치관을 지속하지 못했다는 데 좌절했고, 그는 ‘나는 죽었다’고 선언하고 그게 거세라는 행위로 이어진다. 사람이 산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고민, 인간이 무엇 때문에 사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만든다.”

심 연출은 이번 작품에서 형식 등의 실험을 거의 하지 않는다. 최목사의 마지막 모습을 영상으로 담는데 그 영상에서 ‘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 교수는 “우리시대의 소외받은 자는 누구인지 다같이 생각해 봤으면 한다”며 “연극을 통해 시대에 좋은 메시지를 던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방 선생’은 문순태 소설가의 ‘성자의 지팡이’를 모티브로 희곡작가 김창일씨가 대본을 썼으며 ‘해무’의 김민정 작가가 각색을 맡았다. 김수현, 고난영, 양선영, 한중곤, 김종필씨 등 서울과 지역 배우 20여명이 함께 출연한다. 오영묵씨와 진시영씨는 음악감독과 영상 디자인으로 참여했다.

공연은 4월 3~4일 오후 8시, 5일 오후 3시·7시, 6일 오후 3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511-275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걸인과 한센병 환자의 아버지’오방 최흥종 선생 (1880~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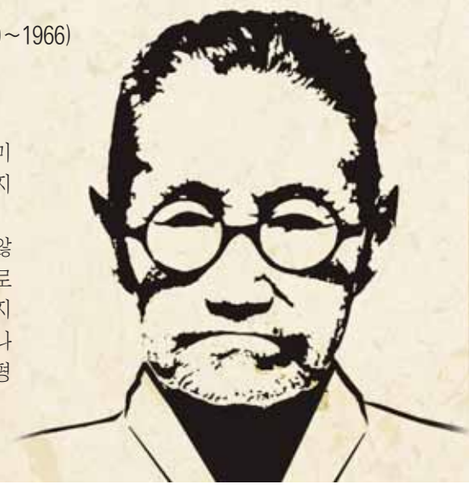
“죽었다고 버리고 간 썩은 나무에도 햇빛과 빗물은 싹을 틔우게 합니다. 병들고 가난하다고 그저 죽게 버려두는 게 옳소이까?”

광주시 불로동 유지의 아들로 태어난 오방은 최망치로 불리며 장터를 주름잡던 청년이었다. 독립 운동과 한센인 치료에 일생을 바친 그는 ‘걸인과 한센병 환자의 아버지’로 불렸다.

한국 최초의 한센인 치료시설인 광주 나병원을 설립(1911)했고, 광주YMCA를 창설(1920)했다.

오방(五放)은 다섯 가지를 버린다는 의미로, 혈육, 사회, 경제, 정치, 종파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지향했다.

그는 이 뜻대로 가족의 정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으로 구속받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경제적으로 속박받지 않으며, 종파를 초월하여 정한 곳 없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5가지 신조를 평생 지키며 살았다.



심재찬 연출

광주MBC, 27일 박태후 화가 강연

광주MBC(대표이사 사장 최영준)는 27일 오후 3시 광주신세계 백화점 9층 신세계아카데미에서 박태후〈사진〉 화백을 초대해 ‘화가의 정원 죽설헌’을 주제로 초청 강연을 진행한다.

나주시 금천면에서 40여 년 동안 한국형 자연정원인 ‘죽설헌’을 가꾸면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박 화백은 죽설헌에 얽힌 삶과 그림 이야기를 풀어놓을 예정이다.

박 화백은 그동안 죽설헌에서의 삶과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집 ‘죽설헌 원림’을 펴내기도 했다.

화가는 창작의 산실이기도 한 죽설헌에서 수백 종의 자생 꽃과 토종 나무, 과실수와 화초 등을 가꾸며 느낀 자연의 섭리와 경험담을 들려준다. 문의 062-360-2623.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호남예술제 출신 문지영 양 다카마쓰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호남예술제 출신 문지영(19)양이 최근 일본에서 열린 제3회 다카마쓰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을 차지했다. 상금은 2000만원.

올해 대회에는 20개국 259명이 참가했으며 문양은 수상자 가운데 최연소로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문양은 미국, 폴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등에서 연주할 기회도 얻게 됐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던 문양은 올해 한예종 음악원을 수석 입학해 피아니스트 김대진 교수를 사사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예술 재능기부 함께해요” 전남문예재단, 30일까지 기부자 모집

전남문화예술재단은 도내 문화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할 재능기부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재능기부자들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산간벽지에 위치한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섬지역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모집 분야는 연극 및 공연 등 순수·대중예술, 북아트·컬쳐아트·풍선아트 체험활동, 마술·사진·우리춤·사물놀이 교육분야다.

도내 거주하는 문화예술 분야 전공자(재학생 포함), 문화예술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문화예술공연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한 예술인 및 단체가 대상이다.

재단은 이와함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재능기부은행·악기기부은행을 운영키로 하고 오는 4월 1일 오후 5시 전남도립도서관 다목적 강당에서 ‘재능기부은행·악기기부은행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악기기부은행’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악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교육용 현악기를 올해 말까지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 문의 061-280-5846~7.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봄날… 흐드러진 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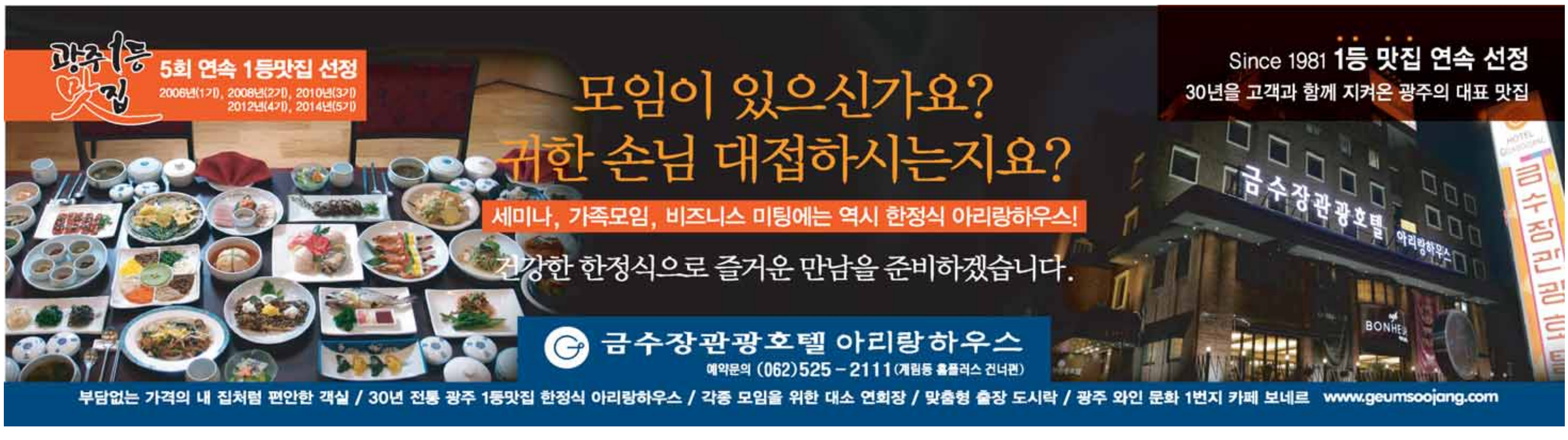
장덕도서관 갤러리, 허달용 초대전

흐드러지게 핀 섬진강 매화가 광주를 찾았다.

한국화가 허달용씨는 지난해 광주시 동구 운림동에서 섬진강 자락 구례 문척면 토금리로 화실을 옮겼다. 평소 즐겨 찾던 섬진강과 지리산 자락에 반해 아예 거처를 옮긴 것. 그는 그곳에서 지난 겨울을 보내면서 추위를 이겨내고 봄을 맞이한 매화를 새롭게 그려냈다.

광산구 장덕도서관 갤러리가 다음달 6일까지 허달용씨를 초대해 ‘봄날… 매향전’을 연다. 허씨는 이번 전시에서 섬진강과 지리산 자락에서 만끽한 매화 등을 수채화처럼 그려낸 월야관매 10점 등 모두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도시의 색을 버린 작가의 작품에서는 자연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먹의 번짐으로 묘사된 섬진강 물줄기와 지리산 자락 위에 곧게 피어난 매화를 표현한 ‘월야관매’, 흐드러진 꽃송이가 바람에 함박눈처럼 쏟아지는 ‘꽃바람’ 등 작품이 인상적이다.

그는 시민사회운동 한복판에서 살아온 작가 중 한 명이다. 작가는 그 안에서 느낀 것들을 ‘달밤에 매화를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지닌 ‘월야관매’에 고스란히 담아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월야관매’